



1940-1960년대, 이 시기 문학은 민족문학이 확립-확장되는 시기이다.

조국 광복과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전후 복구의 시대로
식민지 시대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제기된 때이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사실주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시인 권태응과
풍부한 우의성(寓意性)과 상징성의 작가 염재만 그리고
거침없는 풍자와 해학의 달인 신동문이 있다.

리얼리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권태응

일제강점기의 울분과 항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권태응의 대표작 「감자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인 권태응(1918-1951년)은 1918년 충주시 칠금동에서 태어나 1951년 폐결핵으로 서른 넷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농촌의 자연과 인간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했다. 유달리 정이 많았던 권태응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책감 섞인 사랑마저 느꼈다.



01 권태응의 출생과 학생 시절 : 1918-1935 / 1-18세

권태응은 1918년 4월 20일 충북 충주시 칠금동 381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소년 시절 권태응은 글쓰기, 특히 일기를 잘 쓰는 아이였다고 한다. 충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9세까지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1932년 3월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각 과목에 걸쳐 성적이 우수했으며 특히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권태응은 문학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항일 정신도 강했다고 전해진다.



권태응의 출생과 학생시설

(좌) 충북 충주시 칠금동 381번지 권태응 생가 집터 / (우) 경성제일고보 재학시절

02 민족주의 저항 시인으로 활동 : 1936-1944 / 19-27세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경학과에 입학한 권태응은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서회' 모임을 조직하였다. 이름은 독서회였지만 실상은 빼앗긴 나라를 걱정하며 반일 사상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후 경찰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던 권태응은 1938년, 여름 방학을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짐을 싸다가 독서회를 만들어 민족주의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1939년 5월,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된 권태응은 당시로서는 중병인 폐결핵에 걸려 1940년 6월에 출옥한다. 귀국한 권태응은 인천 적십자 요양소에서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동요를 쓰기 시작했다. 1944년, 병세가 회복되어 고향 충주로 돌아온 권태응은 가난한 시골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부지런히 배워서 지금의 일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라는 말로 항일 사상을 가르쳤다.



민족주의 저항 시인 신동문

(좌) 결혼직후 부인과 함께/(중간) 폐결핵으로 입원했던 적십자 요양원/(우) 동경 유학시절의 신동문

03 동족상잔의 비극과 화제작 제조기 : 1945-1951 / 25-34세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는 오랜 염원인 해방을 맞게 되지만 곧이어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휘말려 남북으로 나뉘는 비극을 겪게 된다. 권태응은 서로 혈통으며 싸우는 어른의 눈이 아닌 맑은 동심의 눈으로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였다. 권태응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 기간은 단편소설 「봄이 오면」으로 등단한 1947년부터 미완의 장편 연재소설 「길은 멀다」를 발표한 1950년까지 약 4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소설, 동화, 동요, 수필, 평론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권태응이 작가로서의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분야는 동요이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권태응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온 국토를 피로 물들이던 1951년 초봄 지병인 결핵이 악화되어 34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권태응은 금릉동 광명산(속칭 팽고리산)의 묘소에 잠들어 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시집으로는 유일하게 1948년 글벗집에 의해 출간된 『감자꽃』이 있다.



작가연보

- 1918** 음력 1월 30일, 충북 충주시 칠금동 381번지에서 아버지 권중희, 어머니 민경희의 장남으로 태어남.
- 1926** 4월 1일, 충주 공립보통학교(지금의 교현초등학교)에 입학.
- 1932** 4월, 경성 제일 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 고등학교)에 입학.
- 1937** 4월 22일,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경학과에 입학.
- 1938** 33회 독서회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힘.
- 1939** 일본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스가모' 형무소에 갇힘.
- 1940** 감옥에서 '폐결핵'에 걸려 풀려났으나 대학교에서 퇴학당함.
- 1941** 인천 적십자 요양원에 입원, 뒤에 아내가 된 박희진 간호사를 만남.
- 1944** 딸 영진 낳음.
- 1946** 아들 영함 낳음.
- 1947** 4월 21일, 아동 잡지 『소학생』 45호에 「어린이 물고기」 발표.
- 1948** 12월, 첫 동시집인 『감자꽃』을 글벗집에서 발행.
- 1950** 6.25전쟁으로 두 번 피난을 다니며 병이 심해짐.
- 1951** 3월 28일, 사망(나이 33세)

작가연보

- 1968** 5월 5일, 충주 탄금대에서 권태응의 동요 「감자꽃」 노래비가 세워짐.
- 1995** 10월, 창작과 비평사에서 동시집 「감자꽃」을 펴냄(유종호 해설 붙임).
- 1997** 해마다 충북작가회의에서 ‘권태응 문학제’ 개최
- 2001** 5월, 한길사에서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이오덕 지음) 발간.
- 2005**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대통령장)로 추서 받음.